

“맛있는 식이섬유” 현대약품, 미에로하이바 새 CF 공개

현대약품은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하이바의 새로운 CF를 공개했다. 일상 속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지난 CF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상을 취미를 즐길 때, 음식을 먹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순간 등 3가지로 나누어 이 순간을 즐기는 ‘맛있는 식이섬유’로 제품을 소개했다. 기존 CF의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와는 달리 차분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사용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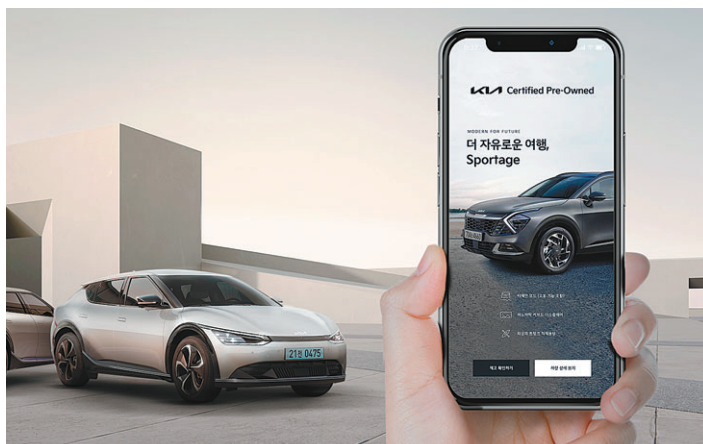
국내 중고차 시장 확대 전망

중고차 시장, 내년부터 대기업도 뛰어든다

중기부, 대기업 진출 1년 유예 권고 2025년까지는 판매 물량도 제한 현대·기아, 인증중고차 등 차별화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도 진출 예상



현대차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콘셉트 이미지(왼쪽) 및 기아 인증중고차 디지털플랫폼 콘셉트 이미지.



사진제공 | 현대차·기아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유예됐지만, 내년 1월부터 중고차 판매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28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2023년 5월로 1년 유예 하라고 권고했다. 2025년까지는 판매 물량도 제한했다.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을 통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등 완성체 업체는 물론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성차 및 렌터카 업체 진출 예상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중고차 이전등록 대수는 250만여 대로 신차등록대수 191만 대보다 1.3배 더 높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중고차 시장은 신차에 비해 2배(미국 2.4배, 영국 2.9배, 독일 2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낮으며,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사에서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고품질 인증중고차, 적정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내차 시

세 서비스’, 중고차 구매 전 한 달간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선 구매 후 구매 프로그램’, 중고차 구독 상품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되면서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 쌍용차 등 타 완성차 업체들도 장기적인 관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중고차 시장에 뛰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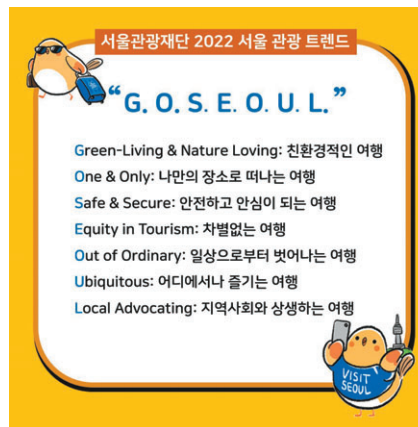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롯데렌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월17일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직후인 3월18일, 중고차 B2C(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롯데렌탈은 중고차 경매장 롯데오토 옥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매장을 통해 연간 5만여 대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고차 B2C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 중고차 판매, 중개, 렌탈은 물론 중고차 인증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렌터카도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K그룹은 과거 SK엔카를 통해 중고차 사업을 하다 2013년 2월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그룹 역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

올해 서울관광 트렌드 키워드는 ‘고 서울’ “친환경·안전·지역상생 여행 통해 새 도약”



서울관광재단은 2022년 서울의 관광 트렌드로 ‘고 서울(G·O·S·E·O·U·L·사진)’을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엔데믹 전환 국면을 맞아 서울 관광의 회복과

2022년 서울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해 7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올해 서울관광 트렌드는 친환경적 여행 ‘그린 리빙 앤 내추어 러빙’(Green-Living & Nature Loving)을 비롯해 나만의 장소로 떠나는 여행 ‘원 앤 온리’(One & Only), 안전하고 안심되는 여행 ‘세이프 앤 시큐어’(Safe & Secure), 차별 없는 여행 ‘에퀴티 인 투어리즘’(Equity in Tourism), 일상에서의 탈출인 ‘아웃 오브 오디너리’(Out of Ordinary), 어디서나 즐기는 여행 ‘유비쿼투스’(Ubiquitous),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여행 ‘로컬 애드보케이팅’(Local Advocating) 등을 예상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백설x올리브영, 추억의 간식 3종 출시

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이 손잡고 ‘백설x올리브영 달라이트 프로젝트’(사진)를 내놓았다. ‘달라이트 프로젝트’는 안전, 건강, 맛있는 간식을 지향하는 CJ올리브영의 간식 브랜드다. 이번 프로젝트 제품은 ‘백설 눈꽃 달고나’, ‘백설 눈꽃 송사탕 플레인’, ‘백설 눈꽃 송사탕 레몬라임’ 등 3종으로 구성했다. ‘백설 자일로스 설탕’을 활용해 제작했으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백설 설탕’의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재미를 더했다.

삼성물산 패션, 5월 맞아 ‘선물’ 프로모션 진행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몰 SSF샵에서 선물을 주제로 한 ‘메이! 비 워너풀(May! Be Wonderful)’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상대방의 MBTI 유형에 따른 선물을 제안하고,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한 고객에게 횡수별 최대 1만 퍼포코인(SSF샵 전용 포인트)을 제공한다. 또 선물하기 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 상위 10명에게 메종투

이마리의 핸드워시를 준다. 31일까지 최대 50% 랜덤 쿠폰을 주는 출석체크 이벤트, 9~15일 매일 오전 10시 주요 브랜드가 참여하는 50% 반값 핫딜 워크, 16~22일 이월 상품에 한해 최대 10만 원 쿠폰 패키지를 지급하는 아울렛 워크 등을 연다.

유사나,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5만 달러 기부

유사나헬스사이언스는 우크라이나 분쟁 피해를 겪는 난민을 위해 지원금 5만 달러(약 6239만원)를 기부했다. 유사나의 사내 사회공헌재단인 유사나 파운데이션은 최근 국제구호기구인 기아아동구호 기금(CHF)을 통해 5만 달러를 기부했다. 유사나 파운데이션은 그동안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전 세계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유사나 제품 등을 후원해 왔다. 기부한 5만 달러는 굶주림과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는 36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83원·경유 58원 인하 효과 기대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 1~2주 소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7월까지 연장 정부 “유류세 인하분 신속 반영 노력”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인하분이 시중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L)당 83원, 경유는 58원 더 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1~2주 가장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 값이 1800원대(휘발유 기준)를 넘어서자 11월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다.

한시적인 인하 조치는 지난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 기준 리터 당 164원에서 83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처음 적용할 당시보다 인하 효과는 크게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가 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시스

즉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 주유소의 경우 기존 재고 물량을 소진한 뒤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인하에는 1~2주 가장 소요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전국 모든 주유소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4월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들이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등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범 기자

요로결석 발병 시 옆구리 통증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 등 요로계에 결석, 즉 돌이 나타나 각종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요로결석이다. 원인으로 수분 섭취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물을 적게 섭취하는 습관으로 소변의 무기 물질, 유기 물질이 여러 이물과 섞여 딱딱한 결석을 형성하는 원리다.

이외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염분이 과도하게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도 요로계 결석을 야기할 수 있다.

요로결석이 발생하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두드러진다. 결석이 요로계를 따라 내려오며 연동 운동을 일으켜 옆구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배뇨장애, 혈뇨 등도 겪을 수 있다. 요로결석 치료 타이밍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지속돼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될 뿐 아니라 요관, 신장 패색의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이차적인 비뇨기 합병증 발병의 원인이 된다.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신장 기능 저하 및 수신증, 신우신염, 농신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 발병 우려도 커진다.

치료법은 결석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선택한다. 결석 크기가 4mm 이하로 작은

경우라면 수분 섭취, 운동 등의 보존요법을 1개월 정도 시행할 수 있다. 보존요법으로 개선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1cm 이상의 큰 결석이라면 체외충격파 쇄석술, 요관내시경 수술 등을 시행한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분쇄, 배출하는 원리의 치료법이다. 결석이 너무 큰 경우는 요관내시경 수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비뇨기과 관악점 전찬후 원장